

진로결정요인에 기초한 영농후계자 확보를 위한 신교육전략에 관한 연구

이용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New Strategy on Fostering Future Farmers Based on the Fundamental Factors

Yong-Hwan Lee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NU.

적 요

이 연구는 전국의 농학계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최고경영자 과정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농 후계자들의 특성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영농 후계자 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체계를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영농인은 영농을 하거나 친숙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고 본인이 영농에 흥미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교육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농 정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농업교육이 영농에 대한 가정적 배경이 없거나 영농 기반이 없고 영농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을 교육하여 영농인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힘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농 후계자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는 영농 기반이 있고 영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영농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개방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농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교육 체제에 일반고등학교나 기타 다른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 영농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영농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 교육은 자영자 양성을 위한 기초 교육으로 하고 농촌지도소를 비롯한 사회교육을 강화하여 거기에서 영농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하도록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I. 서 론

우리 나라 농업 발전에 있어서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생산 분야에 종사할 유능한 영농 후계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영농 후계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영농 후계자 육성에 관련된 학교나 기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다

시 말하면 영농 후계자 양성 주체가 되는 농업계고등학교, 농업 관련 전문대학, 농촌진흥청의 청소년 지도 사업 등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방안이나 접근 방법에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학습자의 흥미가 어떠한 교육만 잘 시키면 영농 후계자가 육성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과연 교육의 힘이 학생들의 흥미나 생각보다 더 강할 수 있는가? 영농에 전혀 뜻이 없는 학생을 가르

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을 교육이 가지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볼 때, 현행의 우리 나라 영농 후계자 교육에 관련된 교육 기관들은 영농을 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영농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농업계고등학교나 농업 관련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3년 내지는 2년간에 학생들의 영농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냐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자가 1993년의 조사에서 이미 확인되었다.¹⁾ 1994년도 영농 정착 희망자 2970명 중 농고, 농전, 농대 졸업생이 35%이며 나머지 65%는 농업계 이외의 졸업자이었다.²⁾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사실은 영농 후계자 교육은 영농에 필요한 기술 교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영농 후계자들이 가진 배경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터하여 우리 나라 농촌의 앞날을 짚어지고 나갈 영농 후계자를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체계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영농 후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업계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고등학교 및 다른 종류의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이 영농 후계자 양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며 학교 교육 요인을 비롯한 각종 요인이 영농 후계자가 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고 현행의 영농 후계자 양성 기관의 문제점을 구명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영농 후계자 양성 체계를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문제를 보다 더 명확하고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① 농업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기타 고등학교 등과 같은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졸업 후 영농 입직을 하는데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② 물려받을 수 있는 농토의 규모, 재산 정도, 부모의 직업 등 가정환경 배경은 영농 입직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③ 영농을 하고자 하는 의욕 등 개인적인 요인은 영농 입직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④ 농업 교육의 효과는 학생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관계가 없을 것이다. ⑤ 영농의 수익성 여부는 영농을 계속하게 하는데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⑥ 현행의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영농자 양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⑦ 현행의 농학계 대학 교육은 영농자 양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하되 (표 1)에서 제시한 대학들의 최고경영자 과정에 등록한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영농자가 입직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정적 배경, 교육적 배경, 영농 조건의 구비 정도, 학교 교육을 받은 정도와 농업에 관련된 교육 내용, 영농에 대한 태도, 현행 농업교육에 대한 인식 등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는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자료 수집은 질문지를 해당 대학에 우송하여 조사하거나 현장 방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수집 결과는 (표1)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부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집계한 후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χ^2 , 검증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1. 질문지 조사 대상 및 응답 현황

학교 구분	배 부	회 수	회수율
서울대학교	120	102	85.0
안성산업대	90	82	91.0
강원대학교	80	55	68.8
건국대학교	50	38	76.0
경상대학교	100	58	58.0
공주대학교	80	60	75.0
순천대학교	50	30	60.0
전남대학교	20	19	95.0
전북대학교	70	35	50.0
충북대학교	100	59	59.0
계	630	538	85.4

III. 연구의 결과 및 고찰

1) 이용환, 정철영, 송해균, 이무근, 이성덕, 류청산. (1993). 농업인력 수요와 연계한 농업교육의 대응 전략.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2, p. 3에서 보면 서울 근교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 배경은 일반고등학교 졸업자가 38%,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 22%, 중졸이 약 17%, 농업고등학교 졸업생이 9%이었는데, 이는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는 학교보다는 본인의 흥미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2) 농촌진흥청. (1995). 농업전문 인력 육성 현황과 성과, p. 76.

1. 영농 입직자의 특성 분석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의 특성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하는데, 이는 현재 우리 나라 중견 영농인들의 특성이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응답자 462명의 86%인 397명이 지금도 영농을 계속하고 있으며 14%인 64명이 영농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논 면적을 보면 1,000평에서 5,000평 사이가 약 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00평에서 10,000평 사이가 약 18%이었다. 10,00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18%에 이르고 있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하였을 때의 농토 면적은 1,001평에서 5,000평 사이가 54%로 가장 많았고, 5,001평에서 10,000평 사이가 18%, 1,000평 이하가 약 15%이었다(표 17). 주로 재배한 작목은 수도작이 39%로 가장 많았고, 채소 약 16%, 과수 약 8%이었으며, 무응이 약 33%이었다. 농사를 한 사람의 약 50%는 가족을 사육한 경험이 있으며, 가족을 사육한 사람 중에는 비육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낙농, 양돈, 양계 순이었다.

이들이 영농에 입직한 경로를 보면 학교를 졸업한 후 군에 갔다가 나온 후 영농을 하게 된 사람이 약 28%로 가장 많았고, 학교 졸업 후 바로 영농을 시작한 사람도 약 27%에 이르렀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농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였다가 영농에 종사하게 된 사람도 약 35%나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표 5).

응답자의 현재 연간 순수익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24%로 가장 많았고,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가 19%,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가 15%이었으며 연간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12사람이나 있었다(표 6).

2. 영농 입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교육 요인과 영농 입직

표 2. 조사대상자의 영농경험 여부

항 목	빈 도	백분율
해 보았음	64	13.9
현재도 하고 있음	397	85.9
없음	1	0.2
계	462	100.0

표 3. 처음 농사를 시작한 형태

항 목	빈 도	백분율
가족이 하는 농사를 도움	288	62.3
다른 사람의 농장에 취직	19	4.1
처음부터 혼자 농사 경영	1453	1.4
기타	5	1.1
무응	5	1.1
계	462	100.0

표 4. 현재의 보유 농지 면적

항 목	빈 도	백분율
1000평 미만	10	2.2
1000평 - 5000평 미만	203	43.9
5000평 - 10,000평 미만	82	17.7
10,000평 - 15,000평 미만	45	9.7
15,000평 - 20,000평 미만	21	4.5
20,000평 - 무응	17	3.8
무응	84	18.2
계	462	100.0

표 5. 농사를 하게 된 경로

항 목	빈 도	백분율
학교 졸업 - 영농	123	26.6
학교 졸업 - 군입대 - 영농	129	27.9
학교 졸업 - 취업 - 군입대 - 영농	71	15.4
학교 졸업 - 군입대 - 취업 - 영농	93	20.1
기타	36	7.8
무응	10	2.2
계	462	100.0

표 6. 응답자의 연간 순수익

항 목	빈 도	백분율
1000만원 미만	6	1.3
1000만원 - 2000만원 미만	70	15.2
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111	24.0
3000만원 - 4000만원 미만	88	19.0
4000만원 - 5000만원 미만	47	10.2
5000만원 - 6000만원 미만	22	4.8
6000만원 - 1억 미만	18	3.9
1억 이상	12	2.6
무응	88	19.0
계	462	100.0

영농 입직에 대한 교육의 영향은 두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계고등학교가 영농 입직자 양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영농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표 7)에서 이 조사의 조사 대상자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58%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 대학 졸업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시점에 있어서는 영농 후계 인력의 주류는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영농인이 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농업계고등학교 교육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보기 위하여 응답자의 출신 고등학교 종류를 파악한 것은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면 응답자의 43%가 일반계고등학교 졸업자이고 32%가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농업계고등학교가 영농자 양성에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전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수 120만명 대 농업계고등학교 학생수 3.3만명의 비율을 감안한다면 영농 후계자 양성에 대한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기여율이 대단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에 있어서는 농업계고등학교 이외의 졸업생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영농 후계자 양성 체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체제 구축에 많은 고려

표 7. 응답자의 최종 학력

항 목	빈 도	백분율
초등학교	17	3.7
중학교	49	10.6
고등학교	269	58.2
전문대학	55	11.9
4년제 대학	28	6.1
기타	5	1.1
무응	39	8.4
계	462	100.0

표 8. 응답자의 출신고등학교

항 목	빈 도	백분율
농업계 고등학교	122	32.3
공업계 고등학교	51	13.5
상업계 고등학교	26	6.9
일반계 고등학교	164	43.4
기타	15	3.9
계	378	100.0

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과 영농 입직과의 관계에서 학교 교육이 영농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본 것은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면 학력과 농사 지식 간에 분명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영농 지식이나 기술이 충분하였다는 반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전혀 몰랐다는 반응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가 높았다. 농사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반응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와 대학은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농사 지식이나 기술 준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표 10)에서 보면 학교 교육에서 영농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 거의 없었다는 사람이 37%, 한두 과목 없었다는 사람이 약 21%로서 영농자들은 현재의 학교 교육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영농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아 농업계고등학교가 영농자 양성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계고등학교에서 영농 후계자가 적게 나오는 것은 영농 기반을 비롯한 다른 요인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1)에서 출신고등학교와 영농 입직시 가지고 있었던 농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정도를 보면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는 영농 기술이 충분하였다고 반응한 사람이 약 17%로 가장 많았고 그런대로 준비되었다는 사람도 43%에 이르렀다. 이에 비하여 일반계고등학교 이외의 다른 계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영농 기술이 충분하였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공업계고등학교나 상업계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도 어느 정도의 영농 기술은 있었다는 사람이 상당한 비율이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다른 계열의 학생들 중에도 영농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영농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농 후계자들이 지금까지 농사 지식을 어디서 가장 많이 배웠는가를 질문한 결과, 농사를 지으면서 스스로 배웠다는 사람이 약 50%로서 가장 많았고, 학교 졸업 후 학교 밖의 교육 훈련에서 배웠다는 사람이 약 24%로서 그 다음이었다 (표 12). 학교 밖의 교육 훈련 기관으로는 농촌지도소 계통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농촌지도소가 영농인을 위한 사회 교육기관으로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3).

표 9. 최종학력과 영농작목에 대한 농사 지식과 기술정도와의 관계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이상		합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충분했다	1	5.9	1	2.0	12	4.6	7	12.7	4	15.4	25	6.1
보통이다	7	41.2	24	49.0	170	64.9	35	63.7	14	53.8	250	61.1
전혀몰랐다	9	52.9	24	49.0	80	30.5	13	23.6	8	30.8	134	32.8
합 계	17	100.0	49	100.0	262	100.0	55	100.0	26	100.0	409	100.0
비 고	$\chi^2=20.981 / df=8 / p=0.007$											

표 10. 학교에서 배운 과목이 농사에 관련정도와 영농 작목에 대한 농사의 지식과 기술정도와의 관계

구 분	많았다		몇과목에 불과		한 두 과목		거의 없었다		합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충분했다	16	15.0	6	6.7	6	6.7	.3	1.9	28	6.6
보통이다	63	72.4	66	73.3	58	65.2	77	48.7	264	62.3
전혀몰랐다	11	12.6	18	20.0	25	28.1	78	49.4	132	31.2
합 계	87	100.0	90	100.0	89	100.0	158	100.0	424	100.0
비 고	$\chi^2=52.712 / df=6 / p=0.000$									

표 11. 출신 고등학교와 영농입직시의 영농작목에 대한 농사의 지식과 기술정도와의 관계

구 분	농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합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충분했다	15	12.2	0	0.0	3	11.5	6	3.8	24	6.8
보통이다	89	73.0	34	66.7	14	53.9	88	56.4	225	63.4
전혀몰랐다	18	14.8	17	33.3	9	34.6	62	39.7	106	29.9
합 계	122	100.0	51	100.0	26	100.0	158	100.0	355	100.0
비 고	$\chi^2=30.062 / df=6 / p=0.000$									

표 12. 지금까지 농사 지식을 가장 많이 배운 곳

항 목	빈 도	백분율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25	5.6
학교 졸업후 학교 밖의 교육훈련	106	23.8
현장에서의 실습	64	14.4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28	6.3
농사를 지으면서 스스로 배운 것	222	49.9
계	445	100.0

표 13. 학교 졸업 후 받은 교육의 종류

항 목	빈 도	백분율
농촌지도소 계통	25	5.6
현장 실습	106	23.8
새마을 교육	64	14.4
대학에서 배움	28	6.3
기타	222	49.9
무용	33	7.1
계	445	100.0

표 14. 학교 졸업 후 받은 총 교육 시간

항 목	빈 도	백분율
50시간 미만	46	10.0
51 - 100시간	99	21.4
101 - 500시간	10	34.6
501 - 1,000시간	75	16.2
1,001시간 이상	52	11.3
무응	30	6.5
계	462	100.0

이러한 결과는 영농 분야의 학습이란 본인이 필요할 때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의 현실을 통하여 배울 때 가장 잘 학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등학교 종류에 따라 영농 입직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가설 ①은 기각되었으며, 교육은 영농 입직과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농업고등학교와 농촌지도소를 비롯한 사회교육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농업계고등학교 교육과 농학계대학 교육이 영농자 양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⑥과 ⑦은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농학계대학 교육은 주로 학문지향적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농인 양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가정환경 배경과 영농 입직

농사를 하는데는 가정 환경의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추정된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토지와 자금이 소요되므로 부모나 형제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사를 시작한 사람들의 부모 직업을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은데, 영농을 시작할 당시의 부모 직업이 농업이었던 사람이 약 78%로 대다수이었고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

표 15. 아버지의 직업

항 목	빈 도	백분율
농업	359	77.7
공업	3	0.6
상업	15	3.2
공무원	19	4.1
기타	22	4.8
무응	44	9.5
계	462	100.0

졌던 사람들은 매우 적었다. 미래의 영농자는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처음에 영농을 시작하였을 때 보유하고 있던 농토 면적과 그 당시 가졌던 영농 기술과의 관계를 (표 17)에서 보면, 1,001평에서 5,000평 사이의 농토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전체의 57%로서 가장 많았고, 5,001평에서 10,000평 사이의 농토 규모를 가졌던 사람이 19%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영농을 처음 시작하는데 부모나 친지로부터의 농토를 이어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높은 농토 가격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농토를 스스로 벌어서 마련하기란 쉽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표 16)에서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농토나 가축의 마련 방법을 물어본 결과, 약 39%의 응답자가 스스로 벌어서 농토를 마련하였다는 응답이었고 약 32%는 내가 번 것과 유산으로 받은 것이 반반이라는 응답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처음에는 농토의 일정 규모를 물려 받아서 점차 키워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농토 규모와 영농 입직 당시에 가졌던 영농 지식과 기술 정도와 관계를 보면 농토 규모가 클수록 영농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반응의 비율이 줄어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표 18).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농토의 규모, 부모의 직업 등과 같은 가정 환경 배경이 영농 입직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가설 ②는 기각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농을 하는 사람은 부모나 형제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는 농토나 영농에 필요한 자본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 부모가 농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쉽게 영농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영농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교육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16. 현재 보유한 농토나 가축의 마련 방법

항 목	빈 도	백분율
내가 벌어서 마련	179	38.7
부모나 다른 사람의 것	40	8.7
대부분 유산으로 받음	40	8.7
내가 번 것과 유산이 반반	147	31.8
기타	23	5.0
무응	33	7.1
계	462	100.0

표 17. 영농 입직시의 보유농지 크기에 따른 영농 작목에 대한 농사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정도

구 분	1000평 이하		1001-5000평		5001-10,000평		10,000평 이상		합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충분했다	4	6.0	13	5.3	8	9.6	2	5.9	27	6.3
보통이다	23	34.3	165	67.1	50	60.2	28	82.4	266	61.9
전혀몰랐다	40	59.7	68	27.6	25	30.1	4	11.8	137	31.9
합 계	67	100.0	246	100.0	83	100.0	34	100.0	430	100.0
비 고	$\chi^2=35.594 / df=6 / p=0.000$									

표 18. 영농 입직시의 보유농지 크기에 따른 농사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정도

구 분	1000평 이하		1001-5000평		5001-10,000평		10,000평 이상		합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충분했다	4	6.0	13	5.3	8	9.6	2	5.9	27	6.3
보통이다	23	34.3	165	67.1	50	60.2	28	82.4	266	61.9
전혀몰랐다	40	59.7	68	27.6	25	30.1	4	11.8	137	31.9
합 계	67	100.0	246	100.0	83	100.0	34	100.0	430	100.0
비 고	$\chi^2=35.594 / df=6 / p=0.000$									

표 19. 영농입직의 동기와 영농작목에 대한 농사의 지식과 기술 정도의 관계

구 분	부모와 동기가 농사경작		별다른 동기 없이		농토와 조건구비		농사로 성공하고 싶어서		합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충분했다	5	3.4	1	4.0	3	3.4	21	12.2	30	6.9
보통이다	88	59.9	13	52.0	63	71.6	107	62.2	271	62.7
전혀몰랐다	54	36.7	11	44.0	22	25.0	44	25.6	131	30.3
합 계	147	100.0	25	100.0	88	100.0	172	100.0	432	100.0
비 고	$\chi^2=18.811 / df=6 / p=0.004$									

다. 영농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영농 입직

영농에 입직하는 데에는 부모의 직업, 영농할 수 있는 토지 및 자본의 준비 등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앞에서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결심이나 의지는 어떤 영향을 주는 가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표 19)에서 영농에 입직한 동기를 보면 부모나 형제가 농사를 하고 있어서 농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람, 별 생각 없이 농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농사로 성공하고 싶어서 영농을 하게 되었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전체의 약 40%에 이르고 있어 개인적인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농사로 성공하고 싶어서 영농을 하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영농

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에 더 열심이어서 영농을 시작할 당시에 영농 지식과 기술이 충분하였다는 사람이 많았고 농사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낮았다(표 19).

영농을 하게 된 동기와 최종 학력과의 관계를 표 20에서 보면 농사로 성공해보고 싶어서 영농을 하게 되었다는 사람이 38%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 형제들이 농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2%로 많았으며 농토를 비롯한 농사 조건이 되어서 영농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약 20%나 되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적인 상황과 영농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개인별 최종학력과 영농입직 동기와의 관계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전문 대학		4년 제이상		합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부모와 형제들이 농사경작	11	73.3	17	37.0	91	35.1	11	22.0	5	19.2	135	32.5
별다른 동기가 없이 시작	1	6.7	3	6.5	12	4.6	6	12.0	1	3.8	23	5.5
농토와 조건이 되어서 시작	1	6.7	6	13.0	59	22.8	7	14.0	8	30.8	81	19.5
농사로 성공해 보고싶어서	2	13.3	20	43.5	97	37.5	26	52.0	12	46.2	159	38.2
합 계	15	100.0	46	100.0	259	100.0	50	100.0	26	100.0	416	100.0
비 고	$\chi^2=25.937 / df=12 / p=0.011$											

표 21. 출신 고등학교와 영농입직 동기와의 관계

구 분	부모와 동기가 농사경작		별다른 동기 없이		농토와 조건구비		농사로 성공하고 싶어서		합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부모와 형제들이 농사경작	29	24.6	25	49.0	11	42.3	55	36.2	122	34.6
별다른 동기가 없이 시작	5	4.2	2	3.9	3	11.6	8	5.3	18	5.2
농토와 조건이 되어서 시작	21	17.8	11	21.6	7	26.9	37	24.3	76	21.9
농사로 성공해 보고싶어서	63	53.4	13	25.5	5	19.2	52	34.2	133	38.3
합 계	118	100.0	51	100.0	26	100.0	152	100.0	347	100.0
비 고	$\chi^2=23.385 / df=9 / p=0.005$									

영농 입직 동기와 학력과의 관계를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와 형제들이 농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농을 하게 되었다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고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농사로 성공하고 싶어서 영농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21)에서 출신고등학교와 영농 입직 동기와의 관계를 보면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은 농사로 성공해보고 싶어서 영농을 하게 되었다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고, 공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는 부모와 형제가 농사를 하고 있어서 영농을 하게 되었다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부모 형제가 농사를 하고 있어서 영농을 하게 되었다는 사람과 농사로 성공하고 싶어서 영농을 하게 되었다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볼 때, 영농을 하고자 하는 의욕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은 영농 입직에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가설 ③과 농업교육의 효과는 학생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④는 기각되며, 결론적으로 영농 의욕은 영농 입직 및 농업교육의 효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라. 영농 시작 때의 영농 수익과 영농 계속과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농사 수입을 본인이 회사에 취직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파악하였다. 농사를 한 결과가 회사에 취직할 때보다 많았다는 응답이 29%, 회사에 취직한 정도라는 사람이 약 31%, 회사에 취직할 때보다 못하였다는 사람이 40%이었다. 처음 영농을 하였을 때 가졌던 농사 지식과 농사 결과와의 관계를 (표22)에서 보면 농사 지식이 충분하였다는 사람은 회사 취직할 때보다 수입이 많았다는 사람이 약 66%이었고, 농사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사람은 회사에 취직할 때보다 낮았다는 응답이 40%를 나타내고 있어 이 두가지 요인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사 지식과 기술에 대한 준비가 농사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농토 규모도 농사 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표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토 규모와 농사 수입과의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가 신빙성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표24)에서 농사 수입과 농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농사 수입과 영농입직시의 영농작목에 대한 농사의 지식과 기술 정도

농사수입	회사취직할 때 이상		회사에 취직한 정도		회사에 취직보다 낮음		합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충분했다	19	65.5	6	20.7	4	13.8	29	100.0
보통이다	84	30.6	101	36.7	90	32.7	275	100.0
전혀몰랐다	26	18.6	29	20.7	85	60.7	140	100.0
합 계	129	29.1	136	30.6	179	40.3	444	100.0
비 고	$\chi^2=50.981 / df=4 / p=0.000$							

표 23. 영농입직시의 농토 규모와 농사 수입과의 관계

구 분	1,000평 이하		1,001-5,000평		5,001-10,000평		10,000평 이상		합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회사월급 이상	14	20.6	63	26.0	26	32.1	16	45.7	119	27.9
회사월급 정도	16	23.5	85	35.1	23	28.4	10	28.6	134	31.5
회사월급 이하	28	55.9	94	38.8	32	39.5	9	25.7	173	40.6
합 계	68	100.0	242	100.0	81	100.0	35	100.0	426	100.0
비 고	$\chi^2=14.846 / df=6 / p=0.022$									

표 24. 영농 시작시의 농사 수입과 영농 계속과의 관계

농사수입	회사취직할 때 이상		회사에 취직한 정도		회사에 취직보다 낮음		합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농사여부								
해보았다	17	13.1	18	13.1	25	13.8	60	13.4
현재도 계속	113	86.9	119	86.9	156	86.2	388	86.6
합 계	130	100.0	137	100.0	181	100.0	448	100.0
비 고	$\chi^2=0.046 / df=2 / p=0.977$							

따라서 농사 수입과 영농 계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⑤는 기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서는 표집상의 문제가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영농후계자 양성에 대한 현행 교육의 문제점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영농 후계자 교육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의 교육이 너무 대학 준비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이 문제가 영농 후계자를 양성하려는 농업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

기까지 학생, 학부모를 막론하고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우선 성적이 좋은 사람은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성적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설령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꿈을 버리지 못한다. 여기에서 고등학교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농업계고등학교는 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이를 배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농업을 배우고 싶어 온 학생보다는 성적이 모자라 어쩔 수 없어 농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일반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성적이 좋고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성적이

표 25. 최종학력과 학교에서 배운 과목과의 관련되는 정도와의 관계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이상		합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많았다	2	18.2	3	7.0	57	22.6	8	14.8	6	23.1	76	19.7
몇 과목	1	9.1	4	9.3	57	22.6	15	27.8	4	15.4	81	21.0
한 두 과목	2	18.2	14	32.6	46	18.3	16	29.6	3	11.5	81	21.0
거의 없음	6	54.5	22	51.2	92	36.5	15	27.8	13	50.0	148	38.3
합 계	11	100.0	43	100.0	252	100.0	54	100.0	26	100.0	386	100.0
비 고	$\chi^2=22.900 / df=12 / p=0.029$											

표 26. 출신 고등학교와 학교에서 배운 과목이 농사와 관련되는 정도와의 관계

구 분	농업계고등학교		공업계고등학교		상업계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합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많았다	59	50.0	4	8.9	1	4.6	12	7.8	76	22.4
몇 과목	42	35.6	7	15.6	5	22.7	20	13.0	74	21.8
한 두 과목	11	9.3	9	20.0	2	9.1	48	31.2	70	20.6
거의 없음	6	5.1	25	55.6	14	63.6	74	48.1	119	35.1
합계	118	100.0	45	100.0	22	100.0	154	100.0	339	100.0
비 고	$\chi^2=143.251 / df=9 / p=0.000$									

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자연히 실업계고등학교에는 성적이 낮은 학생이 가는 것으로 고정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실령 영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농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둘째, 실제로 영농에 입직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영농에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한채 영농에 입직하고 있다. 공업계나 상업계는 말할 것도 없으나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도 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 분야에 들어오는 많은 학생들이 농업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한채 영농에 입직하고 있다.

셋째, 학교 교육에서 영농에 필요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업계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영농에 관련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영농 분야에 취업하는 숫자가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에 비하여 아주 적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네째, 학교 교육과 생산 현장과의 연계가 미약하다. 학교 교육이 대학 입학 시험 준비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에 관련된 교과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론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서 실제의 영농 상황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표 25)에서 보면 학교 교육에서 영농과 관련되는 과목이 많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거의 없다는 대답이 초등학교에서 약 55%, 중학교에서 51%, 대학에서 50%로서 반 이상이 학교 교육이 농업과 관련이 없다는 대답이었고,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몇과목 내지는 많았다고 반응한 사람이 약 5분의 1이 되었다. 이는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고등학교 교육이 영농과 관계가 있는 과목이 많았다고 반응한 사람이 약 22%가 되기 때문에 이 반응의 성격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별로 배운 교과목이 영농과 관련된 정도를 파악해본 결과, 농업계고등학교만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농업과 관련이 많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몇과목 혹은 한두과목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표 26).

4. 영농후계자 확보를 새로운 교육 전략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월 신고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나라 교육은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 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학습자 중심 교육,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 등³⁾을 발표하였다. 1996년 2월에 발표된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에서 학생에게는 교육의 막힌 진로를 열린 희망의 교육으로, 학교에서는 막힌 담 속에서 제각기 하는 교육에서 협력하며 경쟁하는 교육으로, 기업에게 쓸모없는 교육에서 쓸모있는 교육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비효율적인 교육에서 효율적인 교육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⁴⁾

영농 후계자 양성도 이러한 국가적인 교육개혁의 기본 바탕 위에서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교육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농업계고등학교가 우리 나라의 영농 후계자 양성을 전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바로 막힌 담 속에서 제각기 하는 교육에서 어느 학교든지 영농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경쟁의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육 개혁의 기본 바탕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열린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일반계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공고, 상고에서도 영농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탕위에 새로운 구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 영농 후계자 양성 체제와 다양화된 영농 후계자 양성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농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장차 영농을 하고 싶다면 농업관계직에 취업하고 싶다는 희망보다는 다른 요인 때문에 진학한 현실에서 볼 때, 농업고등학교 졸업생만을 유일한 영농 후계자 후보군으로 생각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육개혁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화된 열린 교육 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영농 후계자 양성도 일반계고등학교, 그밖에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더라도 영농을 할 의사만 있다면 영농에 필요한 교육과 아울러 자금 지원 등의 준비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영농 후계자 양성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은 준비 교육의 단계라 생각하고 어떤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

도 그 수준에 맞추어 필요한 전문적인 영농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강화하므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에도 일반계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다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교육을 통하여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이 이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영농 후계자 양성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본인이 영농을 하겠다는 희망과 의지가 중요하므로 이를 기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젊은이들 중에서 영농을 하겠다는 희망과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좋은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농업의 좋은 점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부모들은 농업의 어려운 점을 자식들에게 많이 일깨워주었을 뿐 아니라 농업을 떠나도록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농업도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직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력을 이 분야로 유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농업의 좋은 점을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 중학교 교사 및 교육행정가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농업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부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도록 기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농장 견학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각종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농업에 관련된 강습회를 열어 학부모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나가야 한다.

셋째, 고등학교 수준의 농업교육은 영농 후계자 양성을 위한 종결교육의 성격에서 준비교육의 성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의 영농 상황은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으로 완성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영농에 필요한 토지, 자본, 기술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농업고등학교의 교육을 종결 내지는 완성교육에서 대학 진학이나 사회에 진출하여 특정한 산업 분야의 특정 업무

3)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고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5. 5., PP. 19-22.

4)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고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 1996. 2.9. pp. 6-7.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개혁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준비교육으로 바꾸되 농업고등학교 교육의 차별화 다시 말하면 일반계고등학교나 다른 계통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 관련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하였을 경우에 농업고등학교에서 교육 받은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농업고등학교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농업교육을 받고 난 학생이 사회의 어느 분야에 나가더라도 그 분야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주력하는 한편으로 농업의 어느 특정한 분야에 취업할 할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쓸모 있는 교육이 되도록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농업교육을 일반적인 농업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3학년 때에는 어느 특정 영역의 기능을 기를 수 있는 코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농업고등학교 교육이 사회의 어느 분야에 진출하여도 도움이 될 일반적인 농업교육을 받는 한편 어느 특정 분야의 직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익히도록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재,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수준에서 영농 후계자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영농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의 수준이 점점 높아감에 따라 영농자 양성을 위한 교육의 수준도 높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은 학문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한 영향 때문에 대학은 이론적이고 상이타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실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교육이 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대학도 이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에 오는 많은 학생들이 학문을 하는 학자가 되기 보다는 현실적인 취업 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대학에 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준비를 시켜주는 것은 충분히 그 의의가 있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서 볼 때에도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영농 후계자 양성은 영농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 즉 영농 기반이 있고, 본인이 영농을 할 의사가 확

고한 사람에게 영농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 체계는 초, 중학교에서 농업에 친숙하도록 기초 교육을 받은 다음에 농업계고등학교에서 농업에 관한 준비 교육을 받고 나아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혹은 사회교육 기관에서 농사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만으로는 부족한 숫자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계고등학교나 기타 다른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영농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농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농촌지도소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농업계고등학교의 농업교육도 졸업생들의 타분야 진출이나 영농에 나가려는 사람이 적은 현실에서 볼 때, 농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농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부드러운 교육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제농업개발원, 우리 농촌,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 1994.
2. 김정호, 전업농과 농업 인력 육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 1991.
3. 나승일, 이무근,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성숙과 관련변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 19권 제 2호, 1987, 6.
4. 다지마, 시게오, 농민후계자 교육,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5. 송해균, 2000년대를 향한 농업교육의 좌표, 한국농업교육협회지, 제 19호.
6. 송해균, 농업계 학교를 통한 영농후계자 육성, 농어민 후계자 육성 세미나 보고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개발연구소, 1981.
7. 송해균, 농업고등학교 자립체제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 20권 제 2호, 1988, 6.
8. 송해균, 백대현, 이무근, 이용환, 김재기, 농업교육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9. 송해균, 이무근, 이용환, 2000년대 농업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농업계고등학교 종합대책연구,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1989, 12.
10. 송해균, 한국 농업의 구조적 변화와 농업교육의 역할,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4:3, 1992.
 11. 윤호섭, 박동규, 이영대, 농업 인력의 확보 유지 및 교육 훈련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54, 1992.
 12. 이무근, 김수욱, 전환기의 한국 농촌사회.교육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한국농업과학협회, 12, 1991.
 13. 이영대, 김종숙, 농업계 교육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9303, 1993.
 14. 이용만, 이영대, 농가의 교육비투자와 농촌교육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15. 이용환, 농업계학교 농업교육의 문제와 개선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9:4, 1987, 12.
 16. 이용환, 농업고교 학생의 진로결정 요인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1:1, 1979.
 17. 이용환, 농업교사의 교직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농학연구 제 12권 제 1호, 1987.
 18. 이용환, 산업사회의 변화와 농업교육의 대응,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4:4, 1992.
 19. 이용환 등, 농업 인력 수요와 연계한 농업교육의 대응 전략,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2, 1993.
 20. 정명채 등, 농림수산계 교육개혁의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 D105, 1995.
 21. 정명채 등, 농업경영자 기술 전문대학 설립 운영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 94-2, 1994.
 22. 정성봉, 농업계고등학교 출신 자영자의 영농정착과 관련 변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9:2, 1987.
 23. 정철영, 농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6:3, 1994.
 24. 조완규, 송해균, 이용환, 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 학생의 진로 결정,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 16권 제 1호, 1985.
 25. 최민호 등, 농촌 인력개발 육성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부설 농업개발연구소 보고서, 1993.
 26. 최민호 등, 우리나라 영농 후계 인력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4, 19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계 교육개혁 방향, 1995.
 27. Evans, R.N., Found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 1978.
 28. Miller Melvin D, Principle and A Philosophy for Vocational Education, The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The Iowa State University, 1960.
 29. Phipps, Lloyd J. and Edward W. Osborne, Handbook on Agricultural Education in Public Schools, The Interstate Printers & Publishers, Inc., 1988.